

“국민 신뢰가 최고의 가치” 근로복지공단, 2026년 윤리경영대상 수상

- 국민 신뢰 기반 현장 중심 윤리경영 성과 인정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5일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2026년 한국 윤리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2026년 윤리경영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40회째를 맞은 윤리경영대상은 한국윤리경영학회가 주관하는 상으로, 윤리경영체계 구축과 사회적 책임 실천, 최고경영자의 윤리 리더십, 조직 내 윤리문화 확산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에 수여된다.

공단은 윤리경영을 기관의 핵심 경영전략으로 삼고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한 체계적인 윤리경영 추진체계를 구축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박종길 이사장은 윤리·안전경영을 기관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천명하고 안전윤리경영본부를 공단 제1직제로 신설하는 등 윤리경영 추진 기반을 강화해 왔다.

또한 산재보상과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등 대국민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윤리위험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윤리위험의 식별-평가-통제-모니터링 전 과정을 체계화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단은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ISO 37301(규범준수경영시스템) 통합 인증을 획득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했으며, 내부통제위원회와 윤리경영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정착시켜 왔다.

아울러 계층별 맞춤형 윤리·청렴교육과 참여형 윤리실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조직 내 윤리문화도 확산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증가에 따라 새로운 윤리위험에 대응해 AI 윤리수칙과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등 공공부문 AI 윤리 정착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태백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이주노동자 의료지원, 산재 근로자 자녀 장학사업 등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추진하며 국민 신뢰와 사회적 책임 실천에도 힘쓰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국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임직원이 현장에서 윤리경영을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안전윤리경영본부 윤리사회공헌부	책임자	부 장	김찬규 (052-704-7601)
		담당자	팀 장	유지인 (052-704-7602)

